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3년, 정전 후 이별의 고통과 긴장 속에 분단의 세월을 보낸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 삶터에서 오랫동안 같은 문화를 일구어 온 단일민족이 서로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간혹 극도의 긴장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불행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조계종은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을 위무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그 최종행사인 '자비구현 인류합합 한반도평화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막을 여는 ‘열린음악회’는 지금까지 걸어온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그 무게와 의미를 더하는 훌륭한 축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최하는 ‘열린음악회’는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한반도 평화대회의 주제를 문화와 공연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 표출하게 될 것이며, 그로써 모든 국민의 가슴에 평화에 대한 염원을 더욱 굳게 하는 커다란 촉매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봉행위원회의 여러분들과 kbs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4면. 행사취지

불교계 -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왜 하나

1. 역사의 무게를 감내해 온 이들에게 위로와 경의를!

전장에서 산화한 수많은 국군병사들과 어린 학도병들, 그리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엔회원국 및 이 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각국의 병사들에게 위무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어려워지기 전에 헤어졌던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 민족의 화해와 상생,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 모색

6. 25 한국전쟁 당시 적이 되어 싸웠던 북한군, 중공군 전사자들의 목숨도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천도하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첫돌을 놓고,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을 위하여

한반도는 태평양 해양교통로와 유라시아 대륙의 ‘철의 실크로드’를 하나의 동아리로 엮을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국제항구 도시 부산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평화의 자원수송로로 공동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더불어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 시민들과 더불어 꿈의 신실크로드를 향한 지혜를 모아가려합니다.